

안동권씨 1100년 기념사업을 위한 7개 특별기구 간담회 가져



권영창 회장이 태사묘 앞 잔디밭에서 재배하고 있다.

안동권씨 1100년 기념사업 간담회가 7월 27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중친회관 3층 사무실에서 권영창 대총회 회장, 특별기구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당초 1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선약 등으로 7명이 불참하였다.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오늘 모임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특별기구를 마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일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씨 1100년을 향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보 확대보급, 장학사업 확대, 지역별 입문순회 간담회, 유물기록관 건립 추진, 시조 동상 건립, 진업도서 확, 포장 및 꽃나무길 조성,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주차장 조성, 출산장려 활동 등 크고 작은 사업 20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권영창 회장은 능동 성직조성, 유물기록관, 안동권씨 1100년, 청장년 및 부녀회총흥위원회 등 7개 특별기구를 신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바 있다.

특별기구를 보면 1)능동 성직조성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열, 부위원장 권기수), 2)시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복, 부위원장 권세목), 3)유물기록관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철환, 부위원장 권건중), 4)능동 장학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정달, 부위원장 권오운), 5)안동권씨 1100년 추진위원회(위원장 권강현, 부위원장 권행완), 6)청장년총흥위원회(위원장 권공석, 부위원장 권순용) 7)부녀회총흥위원회(위원장 권상출) 등이다.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7개 특별기구에 필요한 위원 10여 명씩을 선발,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대총

회 수석부회장, 권세목 상임부회장,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강현 홍보 편집위원장, 권기수 상임위원 등이 안동권씨 1100년을 향한 사업에 심도 높은 조언과 열띤 토의를 하였다.

간담회가 끝나자 태사묘 부근에 있는 ‘사계절 갈비’식당으로 이동, 불고기로 점심을 먹은 후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태사묘(太師廟)에 알묘(謁廟)하였다. 지난 5월 24일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으로 취임한 권 회장은 33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쓰고 권오의 대총회 안동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태사묘우(太師廟宇)에 들어가 분향(焚香)하고 다시 태사묘 앞 잔디밭으로 내려와서 재배(再拜)한 후 대총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향축대(香燭代)로 금일봉을 태사묘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농협 창립 제50주년 기념행사 성대하게 개최

안동농협(조합장 권태형) 창립 제50주년 기념행사가 8월 12일 오후 2시 안동실내체육관에서 내빈, 조합원, 지역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Again(어게인) 100년 - 성장과 화합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영진 전 대구시장, 윤성훈 농협경북본부장, 경북도의원, 안동시의원, 각 농협 조합장, 농협 이사, 농협 대의원 등 내빈만 80여 명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권승, 김이남, 디아만테 3인조 등의 가수들이 출연,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 장내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1부 행사는 권태형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 및 임원 9명에게 공로패를, 퇴직동일 및 우수 직원 등 8명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농민단체장, 우수고객, 거래처 16명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테마영상 상영, 100년 향향 미래비전 발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권태형 조합장은 기념사에서 “안동농협은 지난 반세기의 영광은 조합원의 신뢰 지역주민의 애정 400여명 임직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희망찬 100년 농협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책임경영 ▶ 선한 영향력 ◀공동성장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조합원,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고 선포했다. 권 조합장은 현재 안동권씨 안동농교회(峻谷會) 회장을 맡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안동농협은 대한



민국에서 최고의 농협이며 이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낸 것은 조합원과 안동시민들의 덕택”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안동농협은 전국 농협 가운데 종합업적평가에서 연속 7회째 걸쳐 1등을 차지한 것은 안동조합원 때문”이라고 칭찬했다. 권기익 시의장은 축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두 분은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할 수 있도록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윤성훈 농협경북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방의원과 협이해서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농협은 1973년 8월 2일 조합원 832명이 출자금 82만5천원으로 설립, 반세기가 지난 2023년 8월 현재 조합원 7천여 명에 상호금융예수금 1조6천억원, 대출금 1조1천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다. 농협주력 사업인 경제사업은 연간 3천7백억원에 달하며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연속 7회 수상하는 등 다 농협의 추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적을 불허하고 있다.

2부 행사는 인기가수 라진필, 강혜원, 전영록, 김연자 등 4명이 출연,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푸짐한 경품 추첨도 있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능우회 2023년 8월 월례회 개최



안동 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익)는 ‘2023년 8월 월례회’를 입추(立秋)인 8월 8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옥동 ‘고봉삼계탕’ 식당에서 능우회원 20명, 농곡회원 12명 등 모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농곡회원을 초청한 것은 무더위에 수고하고 있는 권태형 농곡회장 등 역대 회장과 임원들이 능우회원들과 함께 정담도 나누고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이다. 권영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월례회는 시조 묘소 망배, 회원 간 상음례를 하였다.

권오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즘 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회원들도 더위를 이겨 내면서 지내자”고 격려한 뒤 “대총회 회장이 바깥에 따라 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안동 등지에 돌아가면서 회의

를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능우회 신입회원으로 입회한 권기락씨는 인사말에서 “농곡회원으로 있다가 나이가 되어 능우회에 가입했는데 앞으로 능우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게스트로 초청된 권태형 농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많은 농곡회원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항상 능우회원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토의에서 내년에 안동농곡회가 안동에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외준비위원장으로 권영호 농곡회 자문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히자 모두들 박수로 환영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삼계탕이 들어오자 권영건 초대 능우회장을 비롯하여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권오익 능우회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하는 등 형제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식용으로 권오익 회장이 떡을, 권중구 농곡회원이 수박을 찬조하여 박수를 받았다.

현재 능우회원 수는 34명이고 격월제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38)



한편 북송의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육일거사六一居士, 시호는 문忠)는 유명한 그의 ‘봉당론朋黨論’에서 군자와 소인에 대해 논하였다. ‘봉당론’에서 ‘君子’와 ‘小人’에 대한 구양수, 정인홍(鄭仁弘), 이익(李滲), 조기반(趙起彬) 등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권인호, “조선전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1995)을 참조하면 좋겠다. 비록 구양수가 왕안석과 사마광의 선배로서 신법에는 찬동하지 않아 구범당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구양수는 두 사람에 대해 “적어도 금전에는 정렴하였고 여색에는 결백하였으며 도덕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남송의 진덕수(眞德秀, 1178~1235, 호는 서산, 건녕부 포성출신)는 주희(朱子)의 영향으로 그의 ‘대학연의’에서 “대학” “격물치지”의 요점을 밝힌 ‘변인재辨人材’장에서 신하를 간신(姦臣)·참신(讒臣)·취렴지신(聚斂之臣)으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인물로 왕안석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악평과 포폄의 난무에 대해, 후대 청나라 건륭제 시대 진사(進士, 1761년, 중국에선 수옹·청까지 대과출신)인 채상상(蔡上翔, 자는 원풍元鳳, 호는 동아東墅, 강서江西 금계현金溪縣 출신) “王荊公年譜考略”에서 700년 간의 왕안석에 대한 편견과 사실의 왜곡날조에서 해방되어 건설한 실증주의로 논증한 최초의 ‘왕안석평전’이었다. “왕형공연고보략”을 바탕으로 청말민초(清末民初)에 양계초(梁啓初, 1673~1929)는 “왕형공”에서 왕안석은 당시의 모순된 구 사회와 기득권 세력의 반유교적 반민본적 정견과 정치현실을 변혁하고자 한 진정된 정치개혁가임을 증명하면서, “인격은 인격 정견은 정견이라 생각하며 정견이 맞지 않다고 그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에 중국의 전근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송대사상사)를 강의한 제임스 류(류자건劉子健)교수의 왕안석에 대한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는 “11세기의 개혁가 왕안석의 신법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근대적 정책들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법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이 시대의 중국인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업임업문제 등에 관련된 정책에게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왕안석은 세계 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왕안석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바탕으로 한 정치도덕성을 수립하고자 한 점에서는 일반 유가 사상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미관판직의 부친이 일

찍 죽고(왕안석 18세 때) 젊었을 때부터 일찍 경험한 지독한 가난과 가족들의 굶주림 및 스스로 23세 때 진사 갑과(甲科)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집도 없이 배(船)에서의 생활 등 가장(家長)으로서의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이 국가의 백성으로까지 확대하여, 유교의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의 실천이 제도적 개혁으로 추진된 점에서 일반 전통적 유자(儒者)들과는 달랐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괴리된 정주(程朱) 성리학자들의 공소(空疎)한 심성론(心性論)의 이상론자들의 정치사상이나 주장과는 달랐다. 것이다. 이들을 극복하고 명청(明清) 시대 경제치용학(經世致用學)이나 고양학과(公羊學派) 및 조선 시대 중·후기에 등장하는 실학사상의 변화지향성과 제도적 개혁정신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정치개혁, 즉 ‘경장(更張)은 혁명과 수상보다도 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알맞는 개혁이 없다면 그 조직이나 나아가 국가 왕조도 내분과 외침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중·일의 선린우호 관계와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동의 집을 구축하는데 대해서, ‘철학은 곧 실학’이라는 공식을 통하여 사회와 정치에 대한 사상과 담론들을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그 난맥상은 친일·송미·반중·반러와 우리 헌법정신의 남북의 평화통일보다는, 제78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적대적인 전쟁분위기 조성을 발원하여 우리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하여 진보 개혁세력을 적대시하는 극우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발언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체제와 정치치사상의 변천의 역사 그리고 최근의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양상을 이해하고, 현재 전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협상으로 끝내기 위하여 우리의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실학정신을 참고해야 된다고 본다.

일본의 평희(平氏: 다히라)와 등원씨(藤原氏: 후지와라노)의 막부(幕府) 형성의 중세봉건 및 근대 장주번(長州藩: 조슈)과 살마번(薩摩藩: 사스마)의 명치유신과 존왕양이(尊王攘夷)적 토막(土幕)사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은 헤이안(平安) 시대 말기 천안(天安)2년(858년) 외척 후지와라(藤原)씨에 의한 섭정(섭관정치攝關政治)이 시작되어 일왕(日王:천황天皇)의 친정(親政)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평희 1년(1159년)의 난을 통해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1118~1181)가 일시적으로 무사(武士; 사무라이; ‘어원이 侍者사무라이무노; 모시는 자에서 전화되었다고 함) 독재정권을 형성하였으나 무너지고(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모토(源賴朝, 藤原氏의嫡孫, 1147~1199)에 의해 ‘가마쿠라(鎌倉) 막부(1185~1333)’가 건국(建久)3년(1192년) 요리모토가 ‘정미대장군(征夷大將軍) 칭호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중친회 제2회 원로원 등 회원들을 위한 삼계탕 대접



안동중친회(회장 권철환)는 입추(立秋)를 하루 앞두고 안동원로원 회원 및 24개 지회조합의 회원들을 초청,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를 갖는 안동중친회는 안동시 인근에 있는 청송군에서 달기 약수를, 영주시 풍기읍에 인삼을 가져와 삼계탕을 만들어 삼복더위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친 회원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였다.

8월 7일 낮 12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중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내빈은 권재주 안동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초대 재안파총회장장친목회 고문 내외분, 권기호 재안파총회장친목회 회장, 권철환 안동중친회장, 권오익 전 안동향교 전교, 권정창 대총회 제례위원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중근 시중공

파 회장, 권중덕 전 시중공파 회장, 권오익 대총회 안동사무국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권남희 전 안동시 의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 권재웅 총무단협의회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아들 남국씨(번호사, 대구) 등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삼복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원로원 회원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삼과 달기 약수를 풍기읍 청송에서 각각 가져와 삼계탕을 만들어 어른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권재주 원로원 의장은 축사에서 “중친회에서 원로원 회원을 위해 삼계탕으로 원기 회복을 시켜주어 고맙기 짝이 없어서 모두들 기분이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에 앞서 권태형 조합장, 권기봉 조합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권용수 교수, 권남국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축사와 인사말을 하였다.

축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을 먹고 간식으로 수박과 떡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